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토크

05





쌍계사

대부도 대금산(大金山)을 주산으로 하는 쌍계사는 산세에 맞게 동향으로 위치해 있다. 사찰의 창건은 명확하지 않으나 16세기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찰의 오른편 구석에 기이한 형태의 바위가 있는데 약수가 끊임없이 솟아난다. 창건 설화에 따르면 이곳을 지나던 취혈대사가 산마루 종턱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웅 5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 뒤 깨어나 그 자리를 파보니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다고 한다. 스님은 이것을 부처의 가르침이라 여겨 이곳에 암자를 짓고 '물이 맑다'는 의미로 '정수암(淨水庵)'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이 정수암(淨水庵)이 쌍계사의 전신이다. 이곳 약수는 철분과 탄산수가 많아 위장병 및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쌍계사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81호 목조여래좌상과 제182호 현왕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0호 아미타화상도 등이 있어 18세기경 조선 후기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 역할도 하고 있다.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로 1171

contents

- 04 **특집 ①** | 202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06 **특집 ②** | 안산시 돌봄 지원
- 08 **생생도시 안산** | 안산시 소식
- 10 **기획 ①** | 안산 땅이름 이야기
단원구 화정동
- 12 **기획 ②** | 안산에 가보고 싶다
와~스타디움
- 14 **톡톡 명예기자**가 간다
- 21 **출동! SNS**시민기자
- 22 **기관소식** | 우리동네 공공기관
- 24 **우리동네** | 상록구와 단원구
- 26 **안산 생생 맛집** | 생선 맛집
- 28 **참여마당** | 독자투고, 나비잡
- 31 **추천 도서**
- 32 **문화소식**
- 35 **5월 특(TALK) 퀴즈, 일자리 정보**

Vol.501



coverstory

노적봉 인공폭포공원

안산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는 노적봉 인공폭포공원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노적봉은 산의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형상과 같다고 해 비롯됐다. 노적봉 정상에 서면 안산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며 이곳에서 환상적인 서해 낙조를 배경으로 인생샷도 찍을 수 있다. 2004년 조성된 인공폭포는 1천900개의 자연석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년 4~10월, 9~18시 사이 폭포를 가동한다. 사진 ● 안산시

발행일 2022년 4월 28일

발행인 안산시장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E-mail** ansannews@korea.kr

홈페이지 안산시홈페이지 ▶ 안산소개 ▶ 시청소식지 <안산톡톡> 무료신청

@ansancity3
 안산시청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안산시유튜브
 ansancity

안산톡톡을 매월 모바일로 받아보는 방법

- ①카카오톡 친구 '안산시청' 검색
- ②카카오톡 채널 추가버튼 클릭
- ③완료



스마트 폰으로도
<안산톡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산, 도시놀이터가 되다~!

202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

2022 Ansan

봄과 여름 사이, 5월 축제 현장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난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 더 이상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수 등에 제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더욱 기다려지는 5월, 그 시작을 알릴 2022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올해 '도시놀이터' 콘셉트를 선보인다. 오랜만에 거리와 광장 곳곳을 예술 놀이로 가득 채울 '도시놀이터, 안산'에서 맘 편히 놀아보자.



안산국제거리극축제(Ansan Street Art Festival)

2005년부터 시작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로 안산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예술축제다.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연극, 퍼포먼스, 음악, 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펼쳐진다. 거리극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예술 공연으로 풀어낸다.

그동안 국내 거리극축제를 이끌어 온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뛰어난 완성도와 높은 시민참여도, 예술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등 다양한 도시의 거리극축제에 영감을 주고 있다.

5월 5~8일, 4일간 안산문화광장이 도시놀이터로 '변신'

3년 만에 안산문화광장으로 돌아온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올해 어떤 공연이 광장을 예술로 채울지 큰 관심을 모은다. 개막작부터 특별한데 희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름 붙인 '개나리 춤 필 무렵'이란 이름의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다. '범 내려온다'로 단숨에 주목받았던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Ambiguous Dance Company)와 안산시민 100여 명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다양한 연령과 취미, 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춤판이다. 각각의 개성이 모여 '놀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맞춰 하나의 몸짓을 선보인다. 춤과 놀이를 접목한 움직임의 통해 코로나19로 지쳤던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며 축제의 막을 열 예정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다양한 팀들로 구성된 33개 공식 참가작도 관심을 끈다. 마리오네트 인형의 섬세한 움직임과 바이올린, 기타, 루프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보파리 크루의 '할머니의 호호밴드', 시민 50여 명의 인터뷰를 들으며 안산의 어제와 오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외 (WAE)의 '아직, 있다!', 지난해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 편에서



Street Arts Festival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멜랑콜리댄스컴퍼니의 '초인(위버멘쉬 : Übermensch)' 등 굵직굵직한 무대가 광장을 가득 채운다.

또 설치형 거리예술로 살거스의 '미래의 편의점 블루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광장 한복판에 미래에서 온 자판기를 설치하고 관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면서 색다를 재미를 준다. 시민으로 구성된 15팀이 선보이는 '시민 버전 6.0' 공연도 준비했다. 안산을 배경으로 하고 동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제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산시민 예술가와 예술 단체가 참여했다. 광장 곳곳 포토존과 서커스 예술놀이터, 우드놀이터 등으로 변하는 '놀이하는 도시'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도 마련했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객이 직접 공연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화려한 폐막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불과 불꽃을 이용한 '불꽃극' 전문단체인 예술불꽃화랑이 준비했다. 도깨비를 콘셉트로 한 폐막작 '불도깨비'는 이름만큼이나 강렬하게 나홀간 이어진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불꽃과 어우러져 인간과 함께 짓궂은 장난을 치는 한국형 도깨비 모습을 배우들의 신명나는 움직임과 강렬한 불꽃으로 그려낸 대형 퍼포먼스다. 화려한 분위기 연출로 폐막의 아쉬움을 달랜다.

부대프로그램으로는 청년예술가 등 20여 팀이 선보이는 아트마켓, '청년예술마켓M-ART'를 운영한다. 슈거 크래프트, 스테인드글라스 유리공예, 염서, 리본공예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ansanfes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AF 2022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안산문화재단 031-481-4000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시에 어떤 돌봄 지원이 있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라는 놀이터'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커졌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 안산시는 눈에 띄는 돌봄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거주 중인 만 0~5세 영유아는 2만1천428명,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1만4천85명이며 안산시 아동의 65.73%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안산시 돌봄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외국인 아동 등 각종 보육료 지원

안산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언어장벽 등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가정을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진했다. 보육료는 만 0~2세 월 22만원(아동당), 만 3~5세 월 24만원(아동당)을 체류 기간 동안 지원한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0~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24~28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는 누리과정 대상 만 3~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민간, 가정, 협동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누리과

정 대상 만 3~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각각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자격을 취득한 아동(만 0~2세)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유제품 등을 제공 하는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최근 1년 이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급식과 위생, 건강,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중앙)



다함께돌봄센터(초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민에게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단원구 화랑유원지 안에 조성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영아놀이실 ▲육아카페 ▲놀이 체험실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단순히 놀이와 돌봄 기능을 뛰어넘어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자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보육교육 직원 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놀이지도 및 영유아 발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오아이사랑놀이터

상록구 산우물공원 안에 조성된 본오아이사랑놀이터는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지상 2층, 연면적 593㎡ 규모로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놀이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독서, 숙제지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설치 의향이 있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시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415-2271~3

본오아이사랑놀이터 031-415-2278

다함께돌봄센터

신길점 031-492-9670
사이동점 031-417-4279
월피점 031-410-9670
해양점 031-407-7050
중앙점 031-413-1220

선부점 031-493-7055
석호점 031-408-9306
원곡점 031-492-9678
초지점 031-365-5455
수정항양점 031-410-9673

소식 1

전동휠체어 사고 안심보험 실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dream 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하지만 인도에 적치된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복-dream 안심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 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준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로 별도 신청 없이 약 2천명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전용보험 사이트인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하면 된다.

소식 2

민간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 1천대 도입



안산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대부도를 제외한 시 전역에 무인대여 민간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를 도입했다. 처음 300대를 시작으로 오는 7월 300대, 9월 400대 등 순차적으로 모두 1천대가 도입된다. 기본요금은 20분에 800원으로 시작해 1분당 40원씩 추가된다. 1시간 요금은 2천400원인 셈이다. 또한 안산시민이 처음 에브리바이크를 이용할 경우 1천원 상당의 25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7일 정기권은 5천900원, 14일 정기권은 8천900원, 30일 정기권은 1만3천900원, 90일 정기권은 3만7천530원이다. 에브리바이크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에브리바이크 앱을 내려 받아 실행한 뒤 위치를 파악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탑승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2022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주민 포함)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소식 3

풍도·육도지역 어르신 위한 '불어라, 풍도학습'



안산시는 5월 3일부터 7월 29일까지 풍도와 육도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불어라, 풍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 소외지역인 풍도와 육도를 찾아 문자해득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문화예술, 건강교육 등을 펼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기억력을 높이는 인지놀이 ▲캘리그래피로 알아보는 아름다운 한글 ▲디지털핸드폰 사용법 배우고 즐겁게 소통하기 ▲한글로 따라 부르는 쉬운 경기민요 등이다.

시 관계자는 "풍도와 육도지역 어르신들에게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고 일상에서 학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평생학습과 031-481-3805

소식 4

메타버스로 소통해요! '안산 메타시티' 구축



안산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칭 '안산 메타시티'를 통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상, 즉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시는 가상공간 '안산 메타시티'에 안산시 지도를 기반으로 안산 9경(景) 등 주요 관광지 중심의 각종 전시관과 홍보관 등을 조성해 안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을 생동감 있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안산시청'을 메타버스에 구현해 ▲시의 주요 정책홍보를 위한 민원실 ▲비대면 소통 공간 회의실 ▲일자리 상담부스 ▲사이버 도서관 등을 운영한다. 사이버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과 좌석 예약, 인문학 강의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가상(VR)·증강(AR)·혼합현실(MR)을 통해 실제 박물관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를 활용해 24시간 열린 시장실을 공개한 바 있다.

안산시 정보콘텐츠과 031-481-2086

땅이름에서 피어나는 안산⑫ 단원구 화정동(花井洞)



화정영어마을 앞 꽃우물(위)
균원지 암각자 모습(아래)

화정동은 법정동 이름이며 행정동은 선부3동 관할이다. 조선시대에 안산군 잉화면(仍火面) 화정리(花井里)와 광곡리(廣谷里)였다가 조선 말기 인화면(仁化面) 화정리와 광곡리가 됐다. 이후 1912년 2월 5일 화정리와 광곡리를 통합해 화정리가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안산군이 시흥군에 통합됐고 그해 4월 1일 인화면이 수암면으로 통합, 개칭되어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가 되었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에 따라 시흥시로 승격하면서 시흥시 화정동이 되었고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되어 안산시 화정동이 되었다.

고주물(꽃우물) 마을 너비울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밀양박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마을이다. 꽃우물은 화정영어마을 앞에 있는 우물로 풍수상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이고 아주 오랜 옛날 이곳에서 매화꽃이 피었다고 하여 '꽃우물(花井)'이라 했다고도 하고, 샘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꽃망울처럼 아름답게 보여 '꽃우물'이라 했다고도 한다. 그 후 마을 이름도 우물 이름을 따 '꽃우물'이라 했는데 이후 고주물로 변을 됐다.

균원지(菌園址) 버섯 효자 김경남이 버섯을 따던 곳으로 이곳 바위에 '균원(菌園)'이라는 암각자가 있다.

너비울 꽃우물 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광곡리(廣谷里)라 불렸다. 1456년(세조2년)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된 김문기와 그의 아들 현석이 죽자 김문기의 손자

화정동 전경



인 김충주가 도성(都城)을 탈출해 안산 마하산에 이르러 숨어 살았는데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세거해 취락을 형성했다. 본래 마하산 아래 넓은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넓은골(廣谷)'이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변음 되면서 '너빌' 또는 '너비울'이 됐다. 마하산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3일과 7월 1일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대장골 고주물 서쪽의 큰 골짜기로 고주물 최초 주거지다. 현재 민가는 없고 모두 농경지다. 조선 통정대부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을 지낸 이원길 장군의 묘가 있어 대장골이라 했다.

마하산(麻河山)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삼밭처럼 보인하고 해서 '마하산'이라 이름이 붙었다.

망월암(望越巖) 고송정(枯松亭) 뒤 마하산 산록(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에 있다. 김문기와 그의 아들 현석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죽자 김문기의 손자인 김충주가 이곳에서 숲을 구우며 남은 생을 보냈다 한다. 그는 단종을 잊지 못한 마음을 이곳 바위에 손수 암각 해 놓았는데 이 바위를 '망월암'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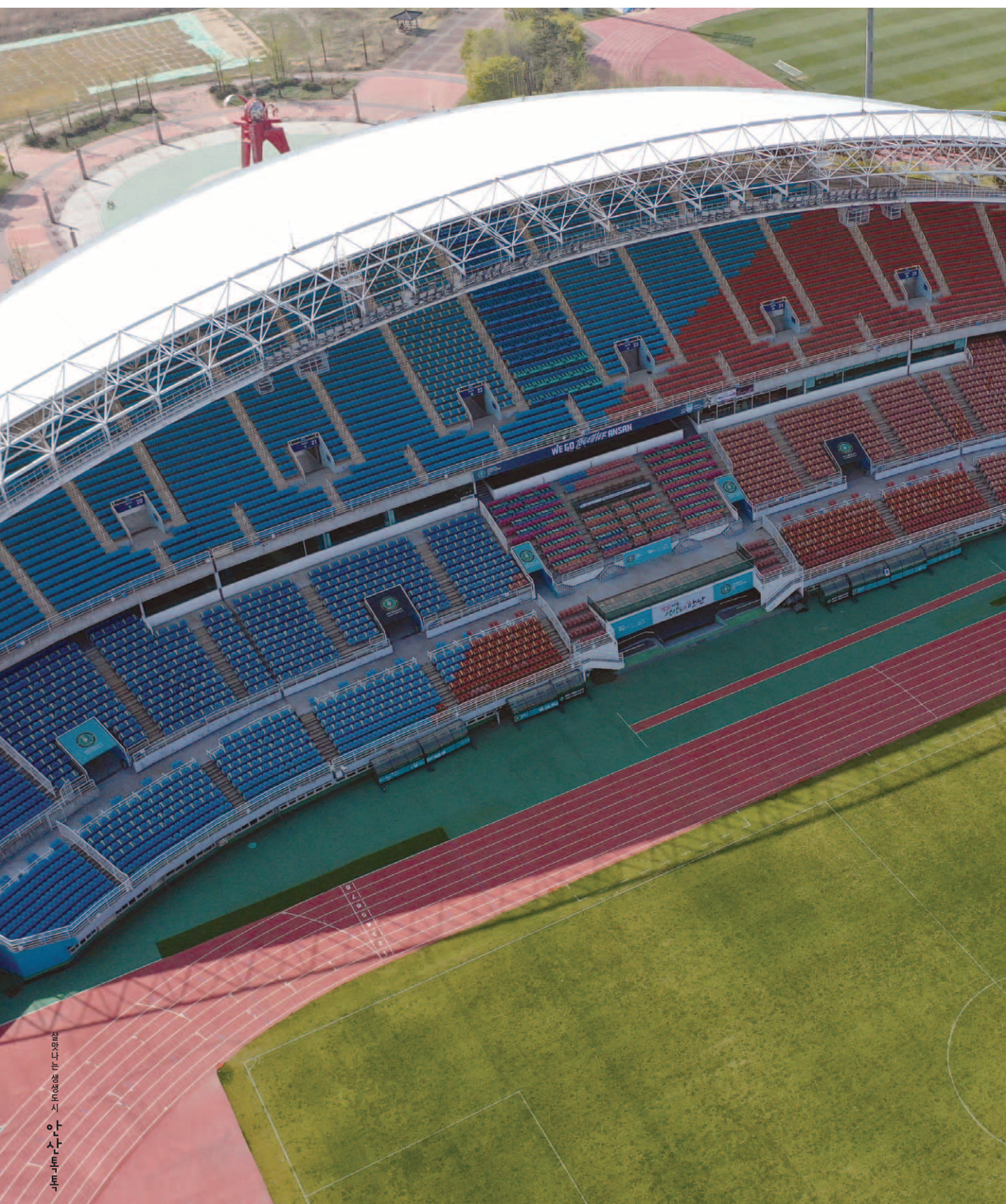
안산(顔山) 고주물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중에 밀양박씨 선대의 묘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고주물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하여 안산이라 했다. 안산시 향토유적 제23호 박거겸(1413~1481년) 장군의 묘가 위치해 있다.



박거겸 장군묘(위)
망월암 암각자 모습(아래)

이현우 안산문화원 향토사전문위원







‘안산’에 가보고 싶다 안산 와~스타디움

올해 안산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매력 발산에 나선다.

2020~2021년 안산 방문의 해에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부도와 안산 9경(景)을 중심으로 안산의 숨은 보물 같은 장소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안산 와~스타디움,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종합스포츠 시설

2006년 12월 문을 연 안산 와~스타디움은 천연잔디축구장과 육상경기장을 갖춘 다목적 경기장으로 이름이 특이한 경기장으로 유명한 만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와~’하는 관중의 함성부터 웰컴 투 안산(Welcome to Ansan), 세계도시 월드 안산(World Ansan), 승리자 안산(Winner Ansan), 여성의 도시(Women Ansan) 등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 표시는 경기장에서의 파도타기를 의미한다.

안산 와~스타디움은 올림픽 예선전과 같은 국제 경기와 2007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08년 제54회 경기도체전 등을 잇달아 유치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그 위상을 높였다. 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수용인원은 총 3만5천석이다. 국제 공인 천연잔디축구장을 비롯해 공인 제1종 400m 8레인의 육상경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기타 체육시설로는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야간 조명 시설과 보조경기장을 갖췄다. 현재 안산그리너스FC가 홈구장으로 사용 중이다.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2021년 10월 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 모습

안산의 문화 상징성을 담은 대표 예술 공간으로의 초대, 김홍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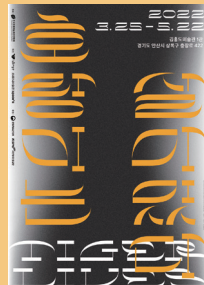


단원미술관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을 새롭게 변경했다. 2020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번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김홍도미술관은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미술을 활성화하는 매개가 되고자 조성했다. 김홍도미술관은 앞으로 김홍도 연구 및 아카이빙 기능 강화, 지역 작가의 동시대 미술 재조명, 안산지역 옛 예인(藝人)들과 김홍도가 교류했던 노적봉에 공간 브랜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현판식을 갖고 안산의 문화 상징성을 갖는 대표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운영에 나선 김홍도 미술관의 주요 전시를 소개한다.

익살스럽고 기개 넘치는 전시 ‘호랑이는 살아있다’

김홍도미술관이 올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코리아나미술관 주요 소장품과 현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호랑이는 살아있다’를 김홍도미술관 1관에서 오는 5월 22일까지 무료로 연다.

단원 김홍도의 동물화 중 최고 걸작은 두 폭의 맹호도이다. 강세황과 합작품으로 그린 ‘송하맹호도’와 ‘죽하맹호도’ 모두 호랑이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호랑이를 주제로 근현대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가 김홍도미술관에서 열린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시는 우석 황종하, 노당 서정묵, 소재 유삼규, 윤보 김기창, 오윤 등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한주예술, 이영주, 제시카 세갈, 필립 위넬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회화, 공예, 영상, 설치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 작품을 통해 호랑이의 표상이 지닌 전통과 현대 맥락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시 해설사와 함께 하는 작품 속 호랑이 이야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두 번(11시, 15시) 진행된다.



〈호랑이는 살아있다〉展

전시장소 김홍도미술관 1관

전시기간 5월 22일까지

(10~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김홍도미술관 1관 내부 전경



〈수호〉展

전시장소 김홍도미술관 2관

전시기간 5월 8일까지
(10~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2천원(안산시민 50% 할인 등)

한국화가 김규리, '수호' 의미를 담아 한국화의 맛을 살리다

전시 '수호'는 최근 한국화가로 활동 중인 배우 김규리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김홍도미술관 2관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열린다. 배우이자 화가인 김규리 작가는 2008년 영화 '미인도'에서 신윤복을 연기한 것을 계기로 전통회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때부터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해 전통회화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익히며 한국화가 가진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 중 메인 섹션에는 전시 주제와 같은 수호신으로서의 '동서남북 호랑이' 모습을 전통 한국화의 멋과 맛을 살려 화폭에 담은 작품들로 구성했다. 호랑이가 가진 수호적 의미를 담아 지금, 이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나머지 섹션은 비움의 미학을 담은 수묵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작가가 작업해온 다양한 습작들과 촬영 현장이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그려온 스케치, 드로잉 등도 스페셜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안산 영화극장, 모든 세대가 클래식영화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안산 영화극장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진 경기도 유일 실버영화관이다. 중앙역 건너편 동서코아 빌딩 지하 2층에 자리한 영화극장을 방문하면 55세 이상은 누구나 2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극장을 이끌고 있는 김현주 대표(왼쪽 사진)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시니어 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극장은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영화제나 다문화가요제를 열기도 했다. 또 지역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생상품 판매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장애인 사회적 기업 생상품의 판로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영화극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전철 4호선 중앙역이 인근에 위치한 덕분이다. 실제로 편리한 교통편 덕분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 대다수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영화극장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장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극장을 지켜낸 결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클래식영화 전용관’으로 지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영화 전용관’은 안산 영화극장, 인천 미림극장, 서울 허리우드클래식(실버영화관) 등이 있다.

영화극장은 일반 영화관과 차별화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4월에는 ‘바이블 영화제’를, 겨울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영화제’를 열면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영화극장에서만 보낼 수 있는 특별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에 게 영화 감상과 함께 다운된 기분을 업 시켜준다.

영화극장은 앞으로 앱과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대중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끌어들이고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주 영화극장 대표는 “영화극장에서 선보이는 클래식 영화와 예술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클래식의 가치를 알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며 “영화극장은 시니어 세대만 간다는 편견을 버리고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색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클래식이란 낡은 것이 아닌 추억을 바탕으로 과거의 것이 현대에 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화극장은 1관 206석 규모이며 독립예술영화는 물론 5월 이후에는 한국 신작 영화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1, 동서코아 지하 2층
영화극장 031-480-3827
권소희 명예기자 estateksh@naver.com



보석보다 빛나는 그림들

시민의 삶과 애환을 화폭에 담아 치유하는 작가 이명숙



오리들의 보금자리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림’으로 15년째 서민의 애환과 삶을 위로하고 있는 이명숙(52) 작가를 그가 운영 중인 금은방 엘도라도에서 지난 4월 11일 만났다. 지금껏 제대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는 이 작가는 꾸준한 그림 작업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문적인 묘사가 가능해지면서 2015년 한 TV프로그램에 ‘금은방 화가’로 출연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생활과 삶 자체가 예술인 이 작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금은방을 운영해 왔다. 2008년부터 15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삶 또한 애환으로 점철돼 서민의 삶과 아픔에 시선이 맞춰지게 됐다. 이 작가는 그림으로 이웃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치유해 준다. 10년 넘도록 서민의 애환과 삶을 그리며 울고 웃는 작가의 그림 이야기를 들어봤다.

❶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지금껏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금은방을 운영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됐다. 감사하게도 방송 출연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다.

❷ 방송에 나가고 나서 유명해진 것으로 아는데?

방송에 나가고 나서 손님이 꽤 많아졌다. 방송을 보고 여러 사람이 배우러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고 말았던 것이 아쉽다. 영업을 하는 곳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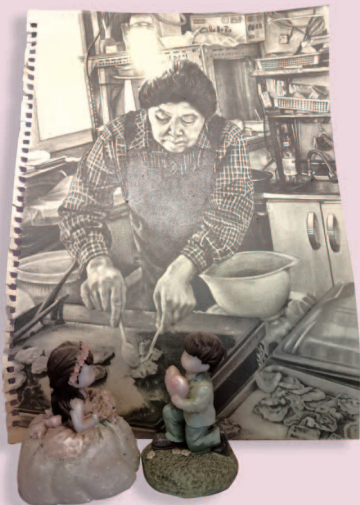
❸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그림은 한 번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리다 보니 며칠씩 걸린다. 그래도 상가 고객이 올 때마다 ‘가게에 그림이 있으니까 눈이 호강한다’, ‘자주 오게 된다’, ‘시장도 보고 그림도 감상하느라 이곳을 자주 들린다’ 등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낀다.

❹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하다

그림 속 주인공 대부분이 노점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시장 상인 등이다. 가장 애정이 가는 그림은 시장에서 부침개를 부치는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다. 마음이 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림에도 그 마음을 넣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인

시장에서 부침개를 부치는 할머니





금은방 엘도라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숙 작가

지 그림이 따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요즘은 고객 요청에 맞춰 유명 연예인이나 초상화 등을 그린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림을 그려 만족감을 주고 있다. 특히 옛 사진을 복원해서 그려달라는 요청이 많다. 대부분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인데 낡고 찢어진 사진들이지만 원본을 바탕으로 지저분한 배경은 없애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고객으로부터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고 보람도 크다.

❶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따로 있다면 살짝 소개해 줄 수 있나?

그림을 그리는 기법은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그리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왼쪽에서부터 그린다. 손에 검은색이 많이 묻기 때문이다. 또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 휴지로 문지르거나 실크 느낌을 주기 위해 지우개로 문질러가며 그림을 그린다. 자연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문지르기도 한다. 그림 대부분 따뜻한 느낌을 주려 한다.

❷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림은 소통의 창구다. 그림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고 밝은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형성한다. 전시를 많이 열어 수익금이 생긴다면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 물론 가게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내 가게도 갖고 싶다. 앞으로 2~3년 후면 가능할 것 같아 기분 좋다.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할머니(위)
축구선수 손흥민(아래)



넓은 가슴을 닮은 5월, 각종 기념일 의미는?



화사한 벚꽃이 만개하던 안산에 어느새 5월이 다가왔다. 5월을 생각하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매년 돌아오는 5월이지만 이런 날들에 어떤 유래가 있는지 알아보고 의미를 되새겨 보자.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라는 말은 아이들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1920년대에 방정환이 정착시키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방정환은 과거 어린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에서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임을 강조하며 어린이 위생관념과 수면, 운동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아동인권을 널리 알렸다. 또한, 1923년 색동회를 조직, 어린이날을 만드는 등 어린이를 위한 많은 활동을 펼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해 1973년에는 기념일로 1975년 이후에는 공휴일로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자 1956년 5월 8일을 범국민적 기념일인 어머니날로 지정했다. 이후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했다.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으로는 카네이션이 있다. 이 꽃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던 미국에서 유래되어 전해졌다고 한다. 원래는 흰 카네이션이 대표했지만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경우에만 흰 카네이션을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병환으로 오래 자리에 누워계시는 선생님을 방문해 정성껏 간호와 문병을 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하는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

해 1964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 보답하고자 했으며 1965년부터 5월 15일로 이어져 오게 됐다. 이날을 계기로 다수의 학급 동창회와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옛 스승을 찾아뵙거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연다. 또 은퇴한 스승의 병고, 생활고를 위로하는 등 사제관계를 돈독히 다지며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존경과 사랑 보은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성년의 날은 보살핌이 필요하던 어리고 연약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성장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성년의 날은 과거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남자의 경우 땀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상투를 틀어 갓을 씌워주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笄禮)’ 의식을 통해 어른이 되는 의미를 깨우치게 했다고 한다. 성년의 날 대표적인 선물로 장미, 향수, 시계가 있는데 장미는 ‘무한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향수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향기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시계는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가기록원 등
윤하정 명예기자 gkwjd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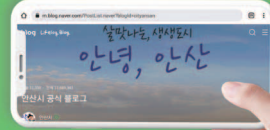


+ 김효경 기자

5월, 아이와 가기 좋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출동!

SNS시민기자



+ 한승묵 기자

세월호 참사 8주기 4월 연극제 <다시, 봄 다시 봄> 관람 후기



+ 이은아 기자

안산시 임신부 등록, 안산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체험하기!



+ 이영광 기자

작지만 알찬 우리동네 휴식공간, 선부동 석수골공원으로 오세요!



+ 고보연 기자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안산시 오소가게 '토닥토닥 괜찮아'



1 안산상록경찰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 182

2 안산단원경찰서
단원구 화랑로 373
☎ 182

3 안산교육지원청 임시청사
단원구 고잔로 58-6
☎ 031-412-4621

4 안산우체국
단원구 중앙대로 815
☎ 031-483-0014

5 안산세무서
단원구 화랑로 350
☎ 031-412-3200

6 국민연금관리공단
단원구 광덕대로 259
☎ 1355

7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록구 삼일로 646
☎ 1577-1000

8 안산상공회의소
단원구 적금로 120
☎ 031-410-3030

제일C.C



9 NEW 동안산세무서(신청사 5월 2일 이전)

상록구 상록수로 20

☎ 031-937-3200

10 NEW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원구 광덕4로 96, 2층(체류 업무)

단원구 광덕4로 88, 5층(그 외 업무)

☎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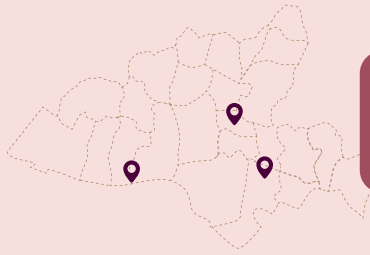
동안산세무서

지난 4월 22일 동안산세무서가 안산세무서에서 분리 개청했다. 기존 안산세무서는 1989년 4월 광명세무서에서 분리 개청한 뒤 2019년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동안산세무서가 분리 개청하게 됐다. 앞으로 동안산세무서는 상록구를, 안산세무서는 단원구를 관할하면서 안산스마트허브 중심의 단원구 납세 수요와 상록구 소재 사업자의 납세 수요를 분리해 납세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향후 신안산선 개통과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납세인원과 민원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 지난 3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승격에 따라 안산출장소·외국인사무소 관할범위는 기존 안산, 시흥에서 광명, 안양, 군포로 확대됐고 업무범위도 기존 체류 및 단순 실태조사업무에서 국적, 난민접수, 사회통합, 외국인조사업무까지로 확대됐다. 종합적인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갖추게 되면서 국적, 난민 등 업무를 원하는 안산지역 민원인의 행정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소셜 '상록수' 무대 '상록구'

일동 지역봉사 실천 주민에게 감사장 전달

일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8일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온 주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은 주민 추천을 통해 평소 선행을 펼쳐온 박명자씨와 유재권씨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며 오랫동안 일동 마을 청소와 마을 화단 가꾸기 등 봉사를 펼쳐왔다. 박명자씨는 일동 구룡서길 일대 환경 정비 활동뿐 아니라 동네 공원 담장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시청 관련 부서와 논의해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또 유재권씨는 일동라스베가스 공원과 호동초등학교 일대 주변 보행자도로로 환경 정비 활동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사동 주민 이명수씨, 라면 30박스 기탁

사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15일 사동에 거주하는 후원자 이명수씨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30박스를 기탁 받았다.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이명수씨는 이번 라면 기탁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은 물론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명수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라면을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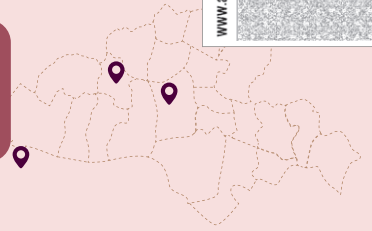


사이동, hy사회복지재단 등과 홀몸어르신 돌봄 업무협약

사이동 및 사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15일 hy사회복지재단 등과 홀몸어르신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이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150명에게 주 3회 이상 유제품 등을 배달하며 안부 확인과 건강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또 제품 배달에 나서는 hy프레시매니저, 사이동, 사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홀몸어르신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설립된 hy사회복지재단은 장학지원, 홀몸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



고잔동 고잔동새마을회, '고잔 명물 열무김치' 판매 하루 만에 완판

고잔동새마을회는 지난 4월 14일 '고잔 명물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회원뿐 아니라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열무김치는 당일 모두 판매됐으며 수익금은 향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겨울철 김장김치 기금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잔동새마을회는 반찬 만들기, 김장 나눔 행사, 바자회 개최 등 지역 내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백운동 백운동새마을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진행

백운동새마을회는 지난 4월 13일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새마을회원들은 열무김치 등 밑반찬을 만들어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상 외부 활동이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 및 홀몸어르신 40명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옥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온정을 전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활동을 다방면에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부2동 선부2동, 익명의 기부자 쌀 50포 기탁

선부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15일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쌀(10kg) 50포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해 달라면서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고재준 선부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기부자에게 감사하다. 그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탁 받은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산 생생맛집

생선
맛집



광어부터 우럭, 참돔, 가자미, 전어, 도다리, 꼬막, 멍게, 가오리, 소라, 전복, 생선구이, 조갯국, 물회까지. 신선한 회와 맛있는 전체 요리,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매운탕이 일품인 안산 생선 맛집의 신선한 맛의 세계로 떠나보자!

출처 맛집 안내 책자 <안산 생생 맛집 48>

신선한 바닷가재를 믿고 즐길 수 있는 곳, ‘뉴욕바닷가재’

캐나다산 바닷가재만 쓰며 가재를 잡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바닷가재 요리 전문 고급 레스토랑이다. 10년 넘게 최상의 맛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는 이곳은 단골이 많은데 그 비결은 믿을만한 원산지에 있다. 캐나다에 위치한 북대서양 청정해역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잡아온 신선한 바닷가재를 수족관에서 바로잡아 요리한다.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77(사동)
031-418-5273

매콤달콤 칼칼한 오징어 요리의 진미(珍味), ‘먹물오징어’

고급 식당에 가야 맛볼 수 있는 값비싼 요리가 돼버린 오징어 요리. 그 오징어 요리를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맛으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먹물오징어다. 이곳만의 맛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함’이다. 여기에 신선한 재료와 매일 만드는 소스,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사장님의 운영마인드가 더해져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63-11(고잔동)
031-439-2378



바다를 통째로 담은 해산물 요리 전문점 '어부'

'바다를 통째로 담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어부의 대표 메뉴는 각종 해산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고급 생선요리 어부한상이다. 자연산 모듬회, 산낙지, 육회, 아귀찜, 탕 등을 즐길 수 있는 어부한상 외에도 1, 2인 메뉴와 점심특선 메뉴가 있어 혼자 오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다.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55(성포동) | 031-487-7586



회 마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금도횃집'

3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사장님이 운영하는 비금도횃집의 대표 메뉴는 스페셜 회 정식이다. 계절마다 다르지만 광어, 우럭, 참돔이 나오는 스페셜 회 정식은 회 요리 외에도 다양한 서브메뉴가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다. 사장님이 직접 연안부두에서 횃감을 공수해 와 신선하고 맛있는 회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26(본오동)
031-493-5066



목포만의 특색 있는 맛을 책임지는 '사계절참맛'

어머니 손맛을 아들이 이어받아 전라도 목포 음식을 선보이는 사계절참맛은 전문가도 손질하기 어렵다는 민어며 병어를 등성등성 썰어 무치거나 회와 탕으로도 한상 가득 맛나게 차려낸다. 전국 음식경연대회 1등을 자랑하는 젊은 요리사가 열정뿐 아니라 실력까지 갖췄다. 이곳에서 제대로 된 목포 음식을 만나보자.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45-5(고잔동)
031-401-9123





독자투고 ①

박정화(단원구 와동)



언제나 엉뚱 발랄한 우리 반!

나는 장애 통합반 교사다. 우리 반은 비장애 원아와 장애 원아가 서로 어울려 놀고 밥을 먹으면서 모든 하루 일과를 함께 보낸다. 장애통합이라 현실적으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누가 장애인지 누가 비장애인지 큰 구분 없이 같은 반 친구로 잘 지낸다. 해맑은 만 3세 친구들이라 하루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의 해프닝은 피로에 누적되어 있는 우리 교사들을 웃게 만든다.

장난감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친구가 속상한데 장난감이 100개면 선생님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해. 친구도 놀고 싶어 하니까 좀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교사의 개입으로 의견을 주면 “OO야, 너도 갖고 놀고 싶어? 여기 있어. 선생님, 친구 빌려줬어요”라며 웃는다. 해맑은 이 아이들을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 젤리나 사탕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먼저 장난감 정리할 거야. 선생님 저 예쁘게 앉아 있어요”라고 말하는 아직 어린 꼬마들이지만 장애 친구를 위해서는 늘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친구로 알고 간식을 흘리면 휴지를 건네주는 예쁜 모습도 보여준다.

어떤 선생님은 시각 장애인 친구가 와서 어떡해야 하나 걱정 아닌 걱정도 했지만 교실에 비치해 둔 점자 동화책을 본 비장애인 친구가 “선생님, 눈으로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도 책을 볼 수 있어요”라며 신기해하는 걸 보고 언젠가 저 친구들이 점자책도 알고 수화도 배워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몽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쪽이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훈육, 기다림으로 얼마든지 바르게 자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시청자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배운다. 언제나 엉뚱 발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그들 나름대로 또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바르고 예쁘게 자라길 언제나 기도한다. 때로는 그런 엉뚱함이 미래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어 제2의 아인슈타인이나 예술인 등 멋진 어른이 될 줄 누가 안단 말인가?





독자투고 ②

서승희(상록구 사동)

아버이날과 부모님

어릴 적에는 5월을 생각하면 어린이날이 먼저 생각났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할까, 어디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할까 생각을 하곤 했다. 마냥 어린이날이 되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하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5월을 생각하니 이제는 아버지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적은 월급에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기가 여유롭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한 나이가 된 것 같다.

퇴직을 하시고 특별한 수입이 없으시니 수중에 돈이 조금 있어야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텐데 지갑도 얇아지고, 예전과 달리 목소리 힘도 줄어드신 아버지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플 때도 많다.

나조차도 직장 생활이다 사회생활이다 하다 보니 아버지께 무신경할 때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져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고리타분한 말에 머리가 아파져 대화를 포기하곤 한다.

그렇지만 막상 아버지를 생각하면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정을 위해 반평생 넘게 애쓰셨지만 직장에서도 자리를 잃고, 가정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다. 나도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된다면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외로운 모습이 더 눈에 띈다. 눈에 밟힌다. 그래서 더욱 이번 아버지날에는 아버지를 버려 본가에 다녀와야겠다. 요즘 인간의 기대수명이 83.5세 정도다.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사실 수 있다고 보고, 한 달에 한 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240번 정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혹자는 240번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또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유한(有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안산 특특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상당의 원고료를 다은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아기사진



나비잠

이새론(남)



출생년월 2022년 1월

44살에 낳은 넷째. 힘든 임신기간을 보냈고 잠이 부족해 항상 비몽사몽이지만 힘차게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진다. 벌써 네 번째 아이지만 마냥 신기하고 눈동자가 맑고, 예쁘다. 형, 누나들의 사랑으로 웃음꽃이 어우러져 행복하다.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
오랜만의 육아로 두려움이 앞서지만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본다.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이덕성(단원구 신길동)



김도엽(남)



출생년월 2019년 9월



안녕 도엽아. 네가 우리 가족에게 온 지 919일이 됐어.
엄마, 아빠는 도엽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네가 울고, 웃고, 화내고,
즐거워할 때 엄마, 아빠도 함께 울고, 웃고, 화내고, 즐거웠어.
919일 동안 네가 쑥쑥 성장하는 동안 엄마, 아빠도 함께 성장한 것 같아.
앞으로도 엄마, 아빠, 형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자.
항상 너를 응원해. 사랑해♡

봉현숙(단원구 중앙동)



나 단(남)



출생년월 2019년 6월

소중한 단아, 생후 3주부터 6개월까지 3번의 대수술과 치료 등을
받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고 이후로는 잔병치레도 거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 주어서 참 대견하고 기특해.
엄마, 아빠에게 와 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크고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자. 사랑해♡

마지애(단원구 호수동)





5월 추천 도서



이달의 주제 **잘 먹고 있나요?**

어린이



1 파스타

저자 에마누엘 트레데즈

출판 내인생의책

사용하는 소스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요리로 변신하는 요리 파스타. 올리브유를 뿌리면 오일 파스타, 고추소스로 요리하면 매콤한 아라비 아타가 된다. 이렇게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파스타의 세계로 우리 모두 떠나보자!



2 요리하는 돼지 쿡

저자 이순진

출판 해와나무

라면 가게를 하는 비실군의 애완 미니돼지 '쿡'이 비실군의 조카 편식 대마왕 두리를 위해 요리 경연 대회까지 참가하며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갖는다. 과연 '쿡'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요리해 주는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청소년



1 반반 무 많이

저자 김소연

출판 서해문집

1950년 6·25전쟁 때부터 1990년대 IMF 시기까지 시기별 음식들을 통해 역사 이야기를 풀어냈다. 각 음식만큼이나 맛깔난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 책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재미있게 맛보자!



2 1시간에 만드는 일주일 반찬

저자 서영자

출판 웅감한끼치

나이를 먹는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요리는 없다. 요리에는 엄마만의 부엌살림 지혜와 노하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반찬도 1시간이면 똑딱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책의 비법 레시피를 함께 알아보자!

일반



1 아빠 요리

저자 김인호

출판 싸이프레스

엄마들이 보기엔 너무 쉬운 요리지만 아빠들에게 쉬운 요리란 없다.. 그래도 겁부터 먹지 말자. 밥, 면, 빵, 간식, 손님 초대 요리 등 요리 초보 아빠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메뉴들을 통해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자!



2 최고 중에 최고의 요리

저자 EBS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진들

출판 그리고책

최고의 요리 선생님들이 소개하는 레시피라고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요리 초보도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는 요리연구가 선생님들의 특급 비법 노트를 통해 우리도 한번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보자.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중앙도서관 전화 031-481-2703 / 홈페이지 <https://lib.ansan.go.kr>



문화소식

경기도미술관_전시



**2022 소장품전
〈소장품으로 움직이기〉**
기간 2022.3.22.(화)
~2023.3.19.(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2층
전시실 1,2
구성 회화, 사진, 설치, 입체,
영상 등
내용 경기도미술관 소장전시
관람료 무료



가족 뮤지컬 〈생텍쥐페리〉
일시 5.20.(금) 10시
5.21.(토) 11시,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어린왕자〉의 작가 생
텍쥐페리의 숨겨진 이야
기를 통해 발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2022 청년작가전
〈지금 이따가 다음에〉**
기간 4.5.(화)~8.15.(월)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
구성 회화, 설치, 영상
내용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사의 투영
관람료 무료



**윤희관과 함께하는
아침음악살롱
〈5월 Salon de Meditation〉**
일시 5.25.(수) 11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내용 전문가가 함께 하는 명상
이야기와 수면에 좋은 음
악 연주 공연
관람료 전석 2만원

안산문화재단_공연



**제18회 안산국제거리축제
〈도시놀이터 안산〉**
일시 5.5.(목)~5.8.(일)
장소 안산문화광장
내용 '범 내려온다'로 유명
한 앰비규어스댄스컴
퍼니와 시민들이 함
께하는 초대형 퍼포
먼스 등 다양한 볼거
리



**어린이를 위한 모노 오페라
〈제페토 할아버지〉**
일시 5.28.(토) 14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동
화 〈피노키오〉를 바라
보는 창작 음악 동화극
관람료 전석 1만5천원



안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수.수.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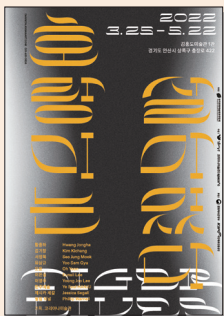
일시 5.4.(수) 19시
(안산시립합창단)
5.18.(수) 19시
(안산시립국악단)
장소 보노마루 소극장
내용 해설과 함께하는 국악단과 합창단 이야기
관람료 전석 1만원



가족뮤지컬 [바다탐험대 옥토넷 시즌2]

일시 5.21.(토) 11시, 14시, 16시
5.22.(일) 11시, 14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대상 생후 24개월 이상
관람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안산문화재단 전시



2022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호랑이는 살아있다>

기간 3.25.(금)~5.22.(일)
※ 월요일 휴관
운영시간 10~18시(17시 입장마감)
장소 김홍도미술관 1관
내용 전시를 통해 살펴보는 호랑이에 대한 다양한 인식 변화
관람료 무료



<수호: 동서남북 호랑이>

기간 3.29.(화)~5.8.(일)
※ 월요일 휴관
운영시간 10~18시(17시 입장마감)
장소 김홍도미술관 2관
내용 화가로 활동 중인 배우 김규리의 전통 한국화 개인전
관람료 2천원(안산시민 50% 할인)

일반	할인(50%)	무료
2천원	안산시민, 초·중·고, 군·경	7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2022 단원 콘텐츠 교육전시 <소년 김홍도, 노적봉에서 세상을 그린다>

기간 5.4.(수) 이후 상설전시
※ 월요일 휴관
장소 김홍도미술관 3관 2층
내용 김홍도가 유년시절을 보낸 당대 문화예술의 중심지 안산에 대해 탐색해보는 전시
관람료 무료

대관 공연 등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문의전화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080-481-4000
경기도미술관	gmoma.ggcf.kr	031-481-7000

2022년 안산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교육기간 2022.4.11.(월) ~ 7.15.(금)
※ 선거기간(5/19~6/1) 이수 불가

대 상 안산시 소속 민방위 대장 및 전체 대원

교육시간 1시간 ※24시간 접속 가능

교육방법 - 네이버/다음 '디지털 민방위' 검색
- 안산시 홈페이지 '디지털 민방위 배너' 클릭

문 의 콜센터 ☎1800-6147 (평일 9~18시 상담 가능)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모기간 2022.4.11.(월) ~ 5.13.(금)

참여대상 안산시민 누구나

대상사업 시(구)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참여방법 온-오프라인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안산시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코너
- 오프라인 시청 기획예산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접수창구

문 의 안산시 기획예산과 ☎031-481-3028

2022년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신청자 모집

신청기간 2022.4.12.(화) ~ 5.10.(화) 18시

신청대상 관내 활동 중인 독서동아리
- 대표자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
- 월 1회 이상 독서모임 실시

지원금액 20만원
(강사수당 및 독후활동 재료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선정시기 2022.5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문 의 안산시 중앙도서관 ☎031-481-2707

상록수·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 대면상담 재개

기 간 2022.5.2.(월)부터

운영시간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대 상 안산시민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방 법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문 의 상록수보건소
☎031-481-5899, 5921
단원보건소
☎031-481-6761~6762



사업장 임대료 인하 등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신청시간 2022년 연중

감면대상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재산세 납세자)

신청방법 구청 방문, 팩스 및 등기우편 접수

감면세목 2022년 재산세(건축물·토지분) ※ 주택분 제외

감면내용 2022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 9월 부과 재산세 감면

문 의 상록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481-5203~6
단원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1-481-6200~4



5월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특>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uiz 2006년 12월 문을 연 '안산 ○~스타디움'은 천연잔디축구장과 육상경기장을 갖춘 다목적 경기장으로 다양한 국제 경기와 2007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08년 제54회 경기도 체전 등을 잇달아 유치하며 스포츠 도시 안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와 ② 헬 ③ 맞

Quiz 안산시가 지난 4월 18일부터 새로 도입한 무인대여 민간 공유자전거 '○○○바이크'는 대부도를 제외한 시 전역에서 이용 가능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권 등이 있어 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에브리 ② 카카오 ③ 네이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 주세요.

응모자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당첨자는 www.ansantalktalk.n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 5월 25일까지

4월 호 정답 ①, ②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평일 9~18시 | 장소 안산시청 민원동 2층

업무내용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문의 031-481-2919

2022년 찾아가는 발굴단(구인·구직) 운영 안내

찾아가는 '수요 잡(JOB) 상담실'

운영시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4~18시

운영장소 상록수역 | 문의 031-481-2919

골목상권 일자리 발굴 '기업 생생정보통'

운영시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4~18시

운영장소 관할 동 지역 동네 골목상권 및 가내공업지역

문의 031-481-2919

계층별 취업특강프로그램 안내

안산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찾아가는 취업특강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주제
5월 11일(수)	경기모바일과학고	직장 예절의 이해
5월 17일(화)	경일관광경영고	영화를 통한 셀프 진로 코칭
5월 18일(수)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문의 031-481-2882

계층별(경력단절여성층) 직무역량 교육 프로그램

과 정 명 OA스킬업(전산실무과정)

교육기간 5.17.(화) ~ 5.20.(금) 모집기간 4.11.(월) ~ 5.6.(금)

문의 031-481-2918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구분	행사명	행사규모	장소	문의
5월 5일(1주차)		어린이날 휴무		
5월 12일(2주차)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구인업체 3개 / 구직자 20명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031-481-2931
5월 19일(3주차)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개 / 구직자 20명		
5월 26일(4주차)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5개/구직자 20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화상면접장	031-481-2919
수시	상설면접	업체 요청 시 수시 진행		031-481-2880

생생도시 안산 방송탔다!



OBS 3월 28일
오늘은 경인 세상
<안산 9경 풍도>



SBS 뉴스 3월 29일
안산시 산업역사박물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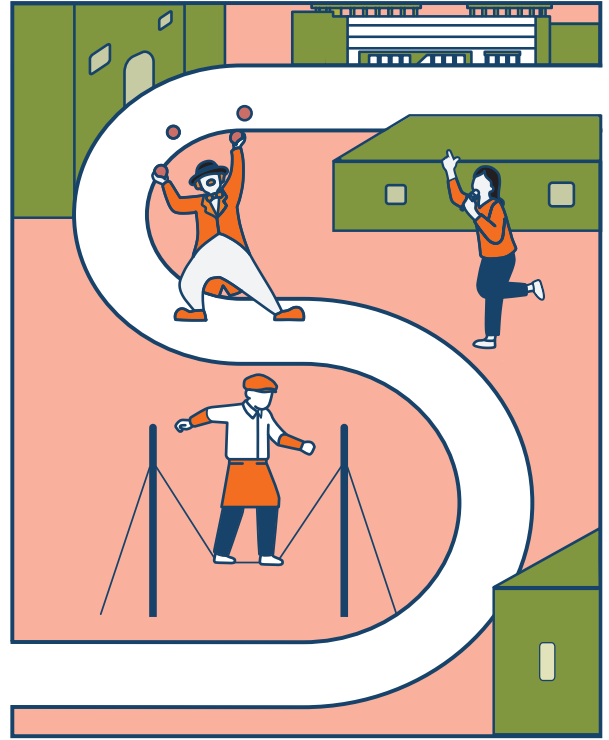
KBS 4월 1일
6시 내고향
<대부해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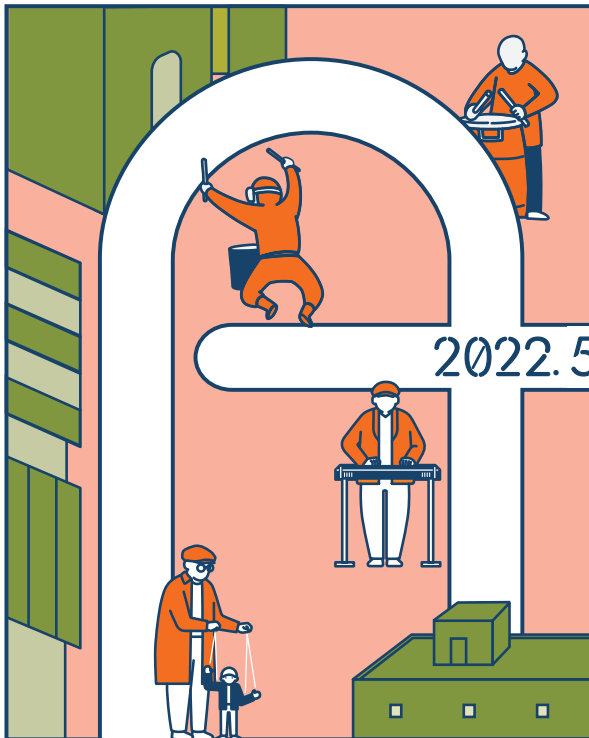
KBS 뉴스 4월 8일
안산시, 소상공인 등에
4차 생활지원금 지급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ANSAN STREET ARTS FESTIVAL 2022



도시 놀이터 안산



2022. 5. 5. 목 - 5. 8. 일. 안산문화광장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주최·주관 |

안산시 ANSAN

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후원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